

개별국이 아닌 세계적 문제로 에이즈 접근

# “국제 협력”이 가장 큰 이슈

:: 이주영 질병관리본부 에이즈결핵관리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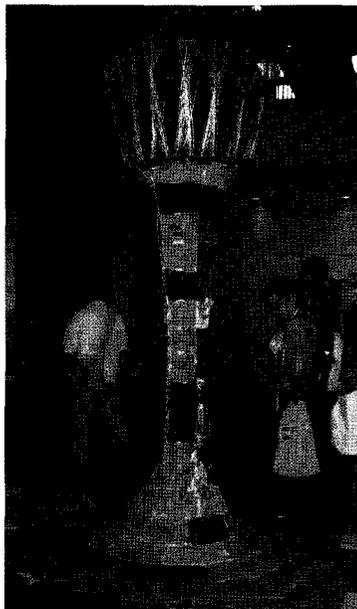
제15차 세계 에이즈 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는 전세계 160여 개국에서 약 2만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특히 세계의 에이즈 연구학자들과 학계 인사, 정책 담당자들이 대거 참여하였고, 기초과학, 임상연구·치료·진료, 전염병 예방, 사회·경제안건, 정책·기획 집행 등 크게 5개 분야별로 나누어서 적극적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국제회의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제 15차 세계 에이즈 회의의 이번 주제는 “모든 이를 향한 접근 보장(Access for All)”으로 HIV/AIDS 확산방지와 감염인 지원 및 치료에 대한 모든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고자 하는 취지로 개최되었으며,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 넬슨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등 여러 국제적 인사들이 참석하여 이번 회의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하였다.

## 아시아의 에이즈위기 집중 조명 및 국제협력 촉구

이번 회의는 HIV/AIDS 퇴치를 위한 각국의 적극적 노력 및 협력체계 구축과 리더십을 촉구하는 자리였다. 이제 에이즈는 각 국에서 개별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감염확산의 중요성을 새로 인식하고 아시아의 에이즈 위기를 집중 조명하여, 그에 대한 국제적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제적 여론 및 연구 등을 서로 공유하여 같이 풀어나가야 할 문제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더불어, 에이즈 감염인의 케어 및 차별철폐, 콘돔사용촉



진, 인권보장, 여성과 어린이 감염예방, 유병률 추정방법, 예방홍보, 백신연구 등 에이즈 확산방지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이 총체적으로 언급되어졌으며, 특히 취약계층인 여성과 어린이 에이즈 환자의 지원 및 보호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들이 제안되어졌다.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 각국에서 아시아-태평양의 에이즈 위기를 예견하고, 에이즈에 대한 최신 연구들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에이즈 예방 및 치료 문제에서는 최근 개발도상국에서 임상시험이 실시된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법(HAART)에 대한 연구 및 평가

도 진행되어 치료의 필요성과 치료대상의 확대가 절실함을 강조하였다.

한국 정부는 치료비, 면역검사 무료지원, 생계비 지원 中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HIV/AIDS 예방과 감염인의 보호

및 치료를 위해 1987년 후천성면역 결핍 증 예방법을 제정하여 HIV/AIDS 감염인에 대한 치료바를 지원하고 있으며, HIV 감염인에 대한 정기적인 면역검사를 무료로 지원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감염인의 경우 기초생활보장 대상 수급권자로 선정하는 등의 지원을 하는 등 감염인 지원확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또한, 감염인에 대한 에이즈 예방과 상담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건소의 에이즈담당자와 지역대학을 연계하여 전문 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민간단체에서는 상담, 훈련, 에이즈 사업의 중간교육자로 활동할 전문요원 인력을 육성하는 HIV/AIDS 중간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HIV/AIDS에 대한 중요성을 이미 인식하여, 2004년 새로 출범한 질병관리본부에 에이즈·결핵관리과를 신설하여 HIV/AIDS의 효율적인 관리 및 예방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국내 에이즈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

HIV/AIDS의 감염 확산을 방지하는 데 필수적 대책으로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장기적 안목의 HIV/AIDS정책의 수립이다. 당분간 국내 HIV/AIDS 감염인의 수는 20~30%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당분간 지속적인 증가를 계속할 전망이다. 이처럼 증가하는 감염인의 수에 부합하는 다각적인 예방관리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사회경제적 부담에 대한 영향을 파악하여 장기적인 관리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는 것이다.

둘째, HIV/AIDS 정책과 지원 및 보호의 확대이다. 이러한 지원의 확대를 위해서는 먼저 한국형 HIV/AIDS 감염패턴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수집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국내의 감염인에 대한 좀더 세밀한 현황조사를 위해 감염인의 재활을 위한 지원이나, 말기 환자를 위한 의료 서비스 지원 등 다각적으로 확대되어 나갈 필요가 있다.

셋째, 성교육·중립적 홍보 교육의 필요성이다. 국내에서는 특히 HIV/AIDS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정립이 필요하다. 특히 정부나 관련 민간단체의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스스로의 보호와, 상대방의 보호'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다. 또한 콘돔의 적극적 사용권유를 통하여 2차 감염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선진국 및 개도국 모든 지역에서 에이즈에 가장 취약한 계층으로 분류되는 청소년과 여성들에 대한 에이즈 예방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문제도 집중 논의되어야 하며, 이들의 지원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자활 프로그램등도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렇듯 HIV/AIDS에 대한 다방면의 관리정책은 감염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수행이 되어야 하는 만큼 많은 노력과 국제적 협력체계가 필요한 신정이고 이러한 다각적인 측면을 고려한 국내 HIV/AIDS 관련 정책이 수행되어질 것이다.